

홈 > 뉴스 > 교육문화

수원시박물관, 수원외고 재능기부로 '외국어 전시해설' 실시

2015년 05월 19일 (화)

김수경 기자



수원외고 학생들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사진=수원시 제공>

수원시박물관사업소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외국어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.

박물관사업소는 지난 14일 수원외고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'T·H·E 박물관 도슨트' 발대식을 가졌다.

이 발대식은 지난 1일 박물관과 수원외고의 협약체결에 따른 것으로,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전시유물에 대한 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에 따라 수원외고 학생들은 수원박물관, 수원화성박물관, 수원광교박물관 등 시 3개 박물관에서 외국어 전시해설 안내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된다.

시 3개 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과 체계적인 봉사학습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.

박물관사업소는 수원외고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체계로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국제화된 관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© by 수원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인쇄하기

❌ 창닫기